

제목 **Theme:** 호산나 **Hosanna**

본문, **Scripture.** 마태복음 **Matthew 21:1-9** 절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When they had approached Jerusalem and had come to Bethphage, at the Mount of Olives, then Jesus sent two disciples,**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saying to them, "Go into the village opposite you, and immediately you will find a donkey tied there and a colt with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you shall say, 'The Lord has need of them,' and immediately he will send them."**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SAY TO THE DAUGHTER OF ZION,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GENTLE, AND MOUNTED ON A DONKEY, EVEN ON A COLT, THE FOAL OF A BEAST OF BURDEN.'"**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The disciples went and did just as Jesus had instructed them,**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and brought the donkey and the colt, and laid their coats on them; and He sat on the coats.**
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Most of the crowd spread their coats in the road, and others were cutting branches from the trees and spreading them in the road.**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The crowds going ahead of Him, and those who followed, were shouting,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기간 중에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이 기간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를 유익하게 한 이적 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공생애 시작한 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요한복음 2:14-16 절)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텐데 그곳에 올라가셔서 또 성전을 정화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유대인들의 악한 행위는 멈추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한대로 ‘말’ 대신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스가랴 9:9 절에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대관식 왕으로 입성하기 위하여 흰색 말을 타야 하는데 나귀를 타신 이유는 “평화의 왕”이며, “사랑의 왕”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타도록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 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며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맞은 편 마을”은 감람 산 벳바게에서 맞은 편 마을이기 때문에 ‘베다니’를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아를 사랑하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고, 마지막 유월절 이전에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였던 사람을 치유하신 시몬의 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축복하신 곳이기도 합니다(마태복음 26:6-13 절).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나귀의 주인이 물으면 대답할 말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 절과 5 절에 말씀하신 성경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이사야 62:11 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고 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6-7 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여 나귀를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겔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 구속의 사건도 유대인의 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2 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23:3 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8 절부터 9 절까지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의 왕의 신분으로 무리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겔옷을 길에 펴 왕의 대관식에 양탄자를 밟고 입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벗어 깔아준 옷을 나귀를 타고 입궐할 때에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여 수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하면서 입성하시는 내용을 시편 118 편 25 절에서도 표현해 놓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자치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을 그것을 이유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15 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환호하며 지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왕이 되지 않고 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에서 약속한대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므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영원한 백성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선지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4 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1 마태복음 5:17 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2 요한복음 1:45 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니라”

3 누가복음 24:44 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9 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1 누가복음 23:38 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 요한복음 19:9 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 마태복음 2:6 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3 마가복음 15:2 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셋째, 예수님께서서는 **구세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5 절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을 새끼를 탔도다”)

1 요한복음 12:13 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2 마태복음 21:9 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3 마가복음 **11:10** 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